

서울스퀘어 외벽 타던 '걷는 사람'들...7년만에 삼청로 거닐다

November 2, 2021 | 오현주 기자

Page 1 of 1

문화 Culture

20 이데일리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졸리안 오피의 '낮 시간?'(Daytime? 2021-원목이 겨울? Winter 7-202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에디고 세운 작품 앞으로 한 관람객이 걸어가며 2021년 현대. 어느 한 도시 속 '걷는 사람'들 풍경은 완성됐다. 작품에 세운 모델은 작가가 영국 런던 작업실을 찾은 지 1년 안을 통해서 찾았다고 했다.



서울스퀘어 외벽 타던 '걷는 사람들'... 7년 만에 삼청동을 거닐다

(서울역 뒷문 건물)

■ 국제갤러리 '졸리안 오피'展

국내선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로 유명한 작가 도시인의 일상풍경을 '걷는 사람'으로 압축 개인의 개성보다 현대인의 '익명성' 집중

인공적 색 입은 동물들, 유희한 잠은 구조물 등 회화·조각·LED 작업 등 신작 31점 선봬



‘소 1’(Cow 1-2020). ‘졸리안 오피’전을 위해 함께 나선 동물들 중 하나. ‘인공적’이고 ‘산업적’인 색을 띄워 그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둡게되면 '그들'이 나타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따위 걸음이 하나를 줄지어 모습을 드러내 '그들'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발도 없이 앞만 바라본 채 걷고 또 걸었다. 때론 마주보기도 하고 때론 어깨가 스치기도 했지만 그들이 서로 '연남'을 갖는 건본 적이 없다.

서울 중구 서울역 건너편, 서울스퀘어빌딩 23층 전경을 뒤덮는 '걷는 사람'들의 행렬은 이처럼 한층 계속됐다.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려 현상을 표현하는 미디어파사드였다. 빈 땅을 캔버스 삼아, 걷는 사람'들을 조명처럼 비추어온 전년의 타이틀은 '군중'(Crowd). 영국 팝아트작가 졸리안 오피(63)의 작품이었다. 차가운 길 위에서 스치듯 만나고 지나지도 헤어지는 수많은 도시인이 겪는 일상의 풍경을 '걷는 사람'(Walker)으로 압축해낸 것이다. 2009년 '군중'으로 서울스퀘어빌딩 외벽을 처음 장식했던 '걷는 사람'은 2019년 '걷고 있는 사람들'(Walking People)로 외벽에 다시 돌아와 또 걸었다.

그 10년 사이 '그들'은 작가 오피의 홈그라운드인 영국 런던을 비롯해 유럽·중·동·남·북 세계를 순다녔고, 한국에서도 이곳저곳을 걸으며 존재감을 알렸다. 서울·부산·대구·전남

등에는 고정작품으로 영구히 남아 '현자인'이 되기도 했다. 오피의 개인전에 나온 것도 여러 차례였다. 2014년 서울 국제갤러리를 시작으로, 2017년 경기 수원시립미술관, 2018년 부산 F1963 등을 거치며 변화해가는 작가의 생각을, 철학을, 기법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다가 잠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단순하게 압축한 현대인- 닭·소 등과 기가이 동행도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 오랜만에 '걷는 사람'이 났다는 소식이 찾아온 전시장은 그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관람객이 더 바쁘게 보였다. '졸리안 오피' 전이란 테마로 연 전시는 작가 오피가 국제갤러리에서 7년 만에 다시 여는 개인전이 다. 일체감 돌린 풍기는 회화뿐 아니라, 평면에 있던 그들을 밖으로 빼내 조각, 유적이든 움직이든 그들로 여의적으로 참여한 LED 작업 등 신작 31점을 선보였다.

'걷는 사람'들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좀더 간결해진 형태, 좀더 둔다운 색채를 입은 것이라고 할까. 빼낸 만큼 다 빼내고 진짜 윤곽으로 남긴 사람들은 여전히 바빠 어디론가를 향해 걷는 중이다. 다만 연작 '겨울'(2020)을 비롯해 '밤 시간'(2021), '낮 시간'(2021), '긴 머리'(2021) 등 조각각의 타이틀이 예전과 다른 시점이란 것을 암시하는데, 오피가 팬데믹으로 작업실에 들어 박힌 채 내다본 바깥 풍경에서 '겨울 코트'로 무장한 사람들이 길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골라 모델로 삼았다는 거다.

오피의 이번 의류가 특별한 건 면 여벌에 동반한 '어떤 대상'을 대이기도 하다. 바로 동물들을 대거 옮겨온 건데. 닭, 소, 강아지, 사슴, 고양이, 당나귀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동물들을 예의 그 간결한 형태, 축약한 상징으로 재해석 평면으로 끌고 입체로 세웠다. '걷는 사람'들과 차이점이러면 '일색의 색감'이라 할 테다. 자연색을 배제한 채 '인공적'이고 '산업적'인 색을 띄워 그저 단순한 '동물의 양국'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특별한 게 또 있다. 골격으로 윤곽만 잡아낸 '구조물'까지 세 있는 거다. 도시의 길을 오가는 사람들 곁에 들어서진 건축물이 그것인데, 한마디로 "축약한 가상도시를 꾸미는 것"이란 설명이다. 런던 시가지 건물에서 따와 재해석했다는, 4m를 훌쩍 넘기는 두 점의 건축물은 그간 사람 혹은 동물에 머물던 오피의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한다. '알루미늄 골조'의 움직임 영리라 '민머리'라고 할까.

집요한 관찰이 빛나는 깊결한 현실

오피가 창조해낸 인물은 익명성을 올리타고 있다. 피토타그램(Pictogram·사람과 사슴, 행태와 기념 등을 상징한 그림판)처럼 대단히 미니멀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들은 눈·코·입·귀가 지워진 채 굵은 선으로 축추 그려 완성된 '누군가'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이라도 그들을 봤다면 그 강한 존재를 쉽게 지울 수 없다. 박진하게 생각해보

필요도 없이 그대로 눈에 '맞기' 때문이다.

한때는 '걷는 사람'들 역시 각자의 개성을 살린 '외모'가 돋보이기도 했다. 7년 전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인 '비 오는 사람'들이 걷기(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2014)가 비교적 그 전집했던 묘사였다고 할까. 전사를 여는 도시의 상경을 작품에 담은 것을 즐긴 오피가 서울의 사당동에서 포착했다는 정면은 이랬다. 양복정장을 차려입고 안경까지 쓴 남자, 반바지와 운동화 차림에 백팩을 메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학생, 머리뒤로 묶은 붉은 윌백의 여인 등등. 양방향으로 오차하며 걷고 있던 그들은, 누가 누군지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세밀'했던 거다. 옷차림은 물론 손목에 찬 시계, 들고 있는 우산까지 '도드라진 인물'로 말이다.

그러나 작가의 인물들은 시간이 지나수록 점점 더 단순한 외형으로 '진화'한 채 오로지 '걷는다'는 행위에만 충실하고 있는데. 옷고 있는지 유고 있는지, 우물쭈문할 거든도 도드라져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의 중요한 의도가 읽힌다. '생상이 이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다. 눈·코·입·귀가 가진 구별, 알뜰달룩한 차림이 가진 정교함 그다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대한 영리리의 행위만 살아남는 세상.

하지만 어떻게 추려내든, 또 어디에 내놔도 오피의 작품은 선명하다. "상상 속 인물로 작업하지 않는다"는 작업원칙 덕분에. 그 핵심은 정지된 눈으로 바라본 '관찰'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모두 그이의 눈에 박힌 구체적 실존 인물로 거다. 고대와 원전을 떠나며부터 19년 실제 연상이러니. 이집트 상형문자, 일본의 목판화, 교통표지판, 공항 LED 전광판까지 오피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형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여전히 세계의 길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걷는 사람', 그 곁에 놓인 일상의 풍경까지 어느 하나도 허투루 태어나진 않았다라는 뜻이다. 전시는 쫓아까지. 글·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em@naver.com